

간호학문에 있어서의 감성적 인식과 예술로서의 간호행위*

공 병 혜**

I. 서 론

1. 문제제기: 간호철학의 과제

간호철학은 철학에서 다루지는 근본적 주제들을 간호학문의 철학적 기초를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 전통적으로 철학에서 다루지는 주요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요약될 수 있다. 1) 자연과 인간의 전체영역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과, 2) 그러한 존재영역에 대한 인식론적 질문과 학문에 대한 방법론, 3) 인간의 실천적 행위와 가치판단과 관계된 도덕적 질문, 그리고 4) 감성적 인식과 예술로서의 미적 행위와 관계된 미학적(aesthetic, ästhetisch) 질문들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철학의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다른 분과 학문의 대상영역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과, 그 대상영역의 지식의 성립조건에 대한 인식론과 더불어 학문의 방법론에 대한 틀과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분과 학문이 인간의 실천적 행위를 목표로 한다면, 도덕철학은 그 학문이 지향하는 인간행위에 대한 도덕적 지침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그 분과 학문에서의 인간행위가 미적 행

위로서의 예술을 지향하고자 할 때, 미학은 감성적 인식과 행위로서의 예술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학은 다양한 분과 학문의 존재론적 규정과 인식론과 학문의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학문이 궁극적으로 실천적 행위를 지향할 때, 철학은 도덕적 지침은 물론, 그 행위가 어떻게 예술로서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간호학문이라는 분과학문에 대해서 위와 같은 철학적 기초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간호철학의 과제는 무엇인가?¹⁾ 간호철학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우선 간호철학은 간호학문의 존재영역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와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이것은 "간호는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질문에는 간호의 본질 규정과 관계하여 간호가 요구되는 인간과, 인간 삶의 총체적인 환경(상황), 그리고 건강과 불건강 등에 대한 개념규정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간호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간

* 이 논문은 간호철학연구회 심포지엄(1999년 10월 2일)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임

** 고려대학교 강사

호철학의 존재론적인 질문인 것이다.²⁾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해명하기 위해 간호철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을 전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간호철학이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을 전제하는가에 따라서 간호의 본질을 규정하는 내용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로저스(Rogers)는 세계를 에너지 장으로 보는 일원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간을 이러한 에너지 장으로 환원될 수 있는 통합된 전체라는 일원론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인간간호에 대한 존재론적인 규명을 하고 있다. 또한 왓슨(Watson) 역시 초월적인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삶을 체험하는 자아와 인격에 대한 실존적 규정을 통하여 돌봄이라는 간호의 본질을 해명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학문의 가장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주제로서의 존재론적인 질문은 바로 형이상학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며, 간호철학은 간호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제들에 대한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한다.

2. 간호철학은 간호학적 지식탐구를 위한 인식론적인 원리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간호철학이 간호학에 제공하는 인식론적인 원리는 간호에 대한 존재론적인 탐구방식에 따라 각각 그 성격을 달리한다. 간호철학은 간호학의 대상영역이 어떠한 인식론적 원리에 의해 학적 지식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또한 학문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간호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경험론과 관찰과 실험에 의해 검증이 가능한 귀납적인 실증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탐구할 수 있다. 이러한 탐구방법은 간호의 대상영역인 인간과 관계하는 세계를 인과법칙에 따라 탐구할 수 있는 기계론적 세계관, 혹은 물질관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러한 물질적이며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따른 인간관은 인간을 정신과 육체의 통합적인 활동에 의한 일원론적인 인간관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활동을 분리시킨 이원론적인 인간관을 지닌다. 따라서 이때 간호의 대상영역은 물질에로의 환원이 가능한

신체를 주된 간호대상영역으로 삼는다. 이때 간호학적 지식은 마치 자연현상을 다루는 자연과학에서처럼 인과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관찰과 실험에 의해 검증이 가능한 지식으로 성립될 수 있다. 또한 귀납주의에 반대한 포퍼(K. Popper)의 가설 연역적 방법도 관찰과 실험에 의해 반증이 가능한 자연현상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심신 이원론적인 인간이해를 기초로 하여 인간의 정신현상과 구분시켜 관찰과 실험에 의해 검증이 가능한 육체적 현상을 오로지 간호의 대상으로 삼을 때 간호학문의 인식론적 탐구방식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적인 원리와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 이때의 학문의 방법론은 귀납주의의 검증원리, 가설연역에 따른 반증원리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간호학적 지식의 질적 탐구로서, 현상학적, 혹은 해석학적 방법론은 이러한 자연과학주의적 방법론이 간호의 본질을 인식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의 방법론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간호의 본질규정이 자연의 생명체에 대한 유기체적인 세계관과 육체와 정신의 일원론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했을 때, 간호학적 지식은 자연과학적인 탐구방식으로 체계화될 수 없다. 특히 로저스(Rogers)의 간호철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을 하나의 전체적인 에너지 장으로 환원시키는 일원적인 유기체적 세계관과 인간을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전체라는 일원론적인 인간관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체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으로부터 모든 간호학의 지식이 연역적 방법에 의해 추론되는 인간과학으로서의 간호학적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왓슨은 초월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간호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통합된 자아의식을 통해 삶의 체험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실존적 주체로서 가정한다. 따라서 간호의 본질을 상호 주체적이며 실존적 관계 속에서 자아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간호학적 지식과 체계는 실존적 현상학, 그리고 해석학적 방법에 의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간호학적 지식에 대한 탐구는 간호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한 형이상학적이면서 존재론적인

전제에 따라 학문의 방법론과 내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간호철학은 간호의 본질 규정에 합당한 간호학적 지식과 체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원리를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³⁾

3. 간호철학은 인간의 실천적 행위로서의 간호행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도덕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 지침들을 제공해야 한다. 간호학문은 순수한 이론 학문과는 달리 이상적인 간호행위를 위해서 도덕적 당위성을 내포한 실천적 지식을 지닌다. 따라서 간호철학은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간호의 목적에 따라 간호행위의 윤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들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간호행위의 윤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들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이론 윤리학에는 도덕적 품성과 자질의 계발에 주안점을 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관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실천이성에 기초를 둔 칸트의 도덕법칙에 대한 의무주의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행위의 결과에 따른 고전적 공리주의, 현대의 규칙공리주의의 입장들이 있다. 이러한 윤리적 기준들은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간호상황에서 도덕적 합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늘어나는 생의 윤리학적 문제들에 직면하여 간호사의 자율적 도덕적인 판단과 상호합의에 의해 도덕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간호철학은 간호와 관련된 윤리적 원리와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지침을 부여해야 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의 이념, 도덕적 선, 행복, 의지의 자율성, 도덕적 인격(person),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리, 선행과 정직, 정의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철학은 구체적인 간호실무에서의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 간호사와 협동자와의 관계,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덕적 규범과 개념에 대한 철학적 지침을 제공해야만 한다.⁴⁾

4. 마지막으로 간호학자들은 간호학을 학문(science)이며 동시에 예술(art)이라고 정의한다.

간호학을 학문으로 규정할 수 있는 철학적 기초들이 존재론적, 인식론적 규정에서 가능하다면, 간호철학은 예술로서의 간호행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철학적 기초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철학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할 수 있다: 건강과 관련된 인간 삶의 체험에 대한 감성적(aesthetic, ästhetisch)인식과 예술(art)로서의 간호행위를 위해서 어떠한 철학적 기초가 요구되는가? 과연 간호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예술(art)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왜 간호학적 지식탐구에서 미학(Aesthetics, Ästhetik)이 요구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위해서 우선 미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철학에서 미학이 독자적인 철학의 한 분과로서 성립해 온 시기는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지 않다. 인간의 이성적, 지성적 사고에 의한 논리적 인식과 구분되는 "감성적 인식에 대한 학문"으로 미학(Ästhetik)이 성립된 시기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바움가르텐(A.G.Baumgarten 1714-1762)에 의해서이다. 그에 의해 비로소 인간의 감성적 능력은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닌 진리인식과 예술창조능력으로서 인정되었다. 미학에서 감성적 인식의 대상은 주로 미와 예술작품이었으며, 또한 미적 행위로서의 예술은 이러한 감성적 인식의 기반 위에서 규명되었다.

그러면 미학은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를 규명하는데 어떠한 철학적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미학은 간호의 대상으로서 건강과 불건강과 관련된 인간 삶의 체험에 대한 감성적 인식에 대한 탐구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감성적 인식방법에 의해서 간호의 대상은 과학적인 논리적 인식처럼 개념에 의해 서술되거나 혹은 원리에 의한 학적 지식의 체계로 구성될 수 없다. 이러한 간호대상과 상황에 대한 감성적 인식은 마치 예술가가 자율적으로 예술창조 행위를 하듯, 개성적이며 자율적인 간호행위를 창조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호행위는 단지 사적이며 주관적인 감성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적 행위와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감성적 인식은 상호 주관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근거를 지녀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한 간호행위 역시 간호의 보편적 이상에 합목적적 이

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술로서의 개별적 간호행위는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간호의 목적을 성취하는 활동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간호행위를 위한 감성적 인식은 개별적인 인격체로서의 도덕적 자아개념을 전제로 한다. 또한 간호대상자와 그의 체험에 대한 감성적인 교류는 인간의 잠재적인 감성적 능력들, 즉 예민한 감수성, 은유능력, 상상력(시적 능력), 기억력, 미래의 예측능력 등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행위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간호철학은 미학적 접근을 통한 간호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를 근거로 한 간호행위가 어떻게 예술로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간호학적 지식과 간호행위를 근거 지을 수 있는 기초로서의 미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간호철학은 간호행위를 위한 인간과 삶의 체험의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감성적 이해가 무엇인가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감성적 이해를 위한 감성적 능력들과 감정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이러한 인간과 총체적인 삶에 대한 감성적 이해가 어떻게 예술(행위)로서 표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논리적 개념과 학적 체계로 구성될 수 없는 감성적 인식은 예술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되어 해석의 과정을 거치던가, 혹은 간호상황에서 직접적이며 자율적인 간호행위로서 표현된다. 즉 간호사의 감성적 인식은 간호사의 시적(poetisch)인 상징, 혹은 은유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해석학적인 작업은 간호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간호현장에서 간호대상에 대한 감성적 통찰은 상호 주관적인 이해의 과정을 통하여 간호행위로서 표현된다. 이때의 간호행위는 주관적이며 개별적이지만, 누구에게나 감정을 통해 보편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예술로서의 간호행위가 보편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간호수행자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도

덕적 감수성에 미적 감정에 의해서이다.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는 도덕적인 인간성의 이념을 투사하여 개별적인 행위를 통해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감에 의해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감성적 인식과 예술로서의 간호를 근거 짓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 1) 철학적 미학에서 이해되는 감성적 인식과 행위로서의 예술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이론과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간호학문에서 감성적 인식과 간호행위로서의 예술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3) 결론적으로 간호철학이 감성적 인식과 예술로서의 간호를 어떠한 주제와 개념규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여 본다.

2. 철학적 미학에서 감성적 인식과 미적 행위로서의 예술이란?

미학사에 의하면 인간의 감성적 인식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는 근대 바움가르텐의 미학과 그 이후의 칸트의 미학과 그의 영향하에 있는 독일관념론의 미학이다.⁵⁾ 물론 고대나 중세에도 미와 예술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감성적 인식영역에 대한 독자적인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적 행위로서의 예술에 대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소급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종의 실천적 행위에 속하는 제작행위로서의 예술(techne)을 자연의 모방(mimesis)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자연은 외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자연의 내적인 원리와 이에 따른 생성활동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러한 자연에 대한 발견적, 습득활동으로서의 모방에 의해 인간의 제작 행위, 즉 예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기서 예술은 현재 통용되는 작품에 대한 창작행위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한 실천적 영역의 제작술(오늘날의 기술, 솜씨, 응용학문)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정의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의학은 학문이며 예술이다”라는 규정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예술은 근대미학 이후 독자적인 창작 분야로 체계화된 예술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자연의 보편적 이치에 따른 기술, 혹은 숙련성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詩學(시에 대한 제작학)에서 특히 인간의 성격과 행위의 모방으로서의 비극이 인간의 정서와 행위에 미치는 감성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비극의 효과는 가련함과 무서움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통한 기쁨이라고 정의된다. 이것은 예술이 인간의 정서와 행위에 미치는 도덕적, 의학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미적 행위로서의 비극은 인간 자연에 대한 모방의 과정을 통해 가련함과 무서움이라는 감정의 카타르시스(순화, 혹은 정화)의 과정을 거쳐 도덕적 감정에서의 승화와 자아치유 적인 예술의 효과를 지닌다고 해석되고 있다.⁶⁾

중세미학에서는 기독교적인 창조신학에 근거한 미와 예술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가 있었지만, 인간의 감성적 능력과 예술에 대한 독자적인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의 인식론에서 인간의 감성적 능력의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탐구가 요구되었다. 특히 라이프니츠(G.W. Leibniz)는 인식의 단계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감성적 인식을 “명석하지만 혼란한 인식”의 단계로 규정한다. 즉 모든 대상에 대한 인식은 명석한 인식과 어두운 인식으로, 구분된다. 명석한 인식은 다시 명석하며 판명한 인식(klar und distinkt), 즉 논리적이고 개념적 인식과 명석하지만 혼란한(klar und verworren) 인식, 즉 감성적 미적 인식으로 구분된다. 명석하지만, 혼란한 감성적 인식은 감각에 의한 감응, 감정, 상상력등에 의해 생기며, 이것은 명석하게 재기억을 할 수 있지만, 마치 색깔, 맛, 소리처럼 개념적인 언어적 표현으로 서술될 수 없다.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감응, 감정, 상상력에 의한 감성적 인식을 인식의 판명한 정도에 따라 개념과 관계하는 논리적 인식과 구분하고 있다.⁷⁾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숨겨진 감성적 인식능력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로서의 학문이 논리학의 확장 영역으로서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라이프니츠의 발견술이란 의미에서 감성적 인식을 내용으로 갖는 학문에 대해 처음 다룬 사람은 빌핑어(Bilfinger)이며, 이러한 빌핑어의 사고를 수용하여 감성적 인식에 대한 논리학으로서의 미학을 성립시킨 자가 바로 바움가르텐(Baumgarten)이다. 그는 미학이라는 학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7 a) 인식의 혼란성은 진리의 발견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어둠에서 사고의 명석함으로 가는데 어떠한 비약도 하지 않는다. 밤에서 정오로 가는 길은 새벽을 통한다.

§ 12 a) 하위인식능력은 어떠한 전제군주가 아니라, 일종의 확실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

b) 미학이 이를 넘겨받는데, 미학이 우리의 손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지도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도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 13 미학은 자신의 자매인 논리학처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이론적 미학: 발견학, 방법론, 의미론 2) 실천적 미학⁸⁾

이처럼 인간의 하위인식능력, 즉 감성적 인식능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도 역할로서의 미학의 기초가 마련된다. 즉 선천적인 자연적 기질로서의 감성적 능력의 발견과 교육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미학을 바움가르텐은 “감성적 인식에 대한 학문”(die Wissenschaft der sinnlichen Erkenntnis)이라고 칭한다. 거기서 미학을 “자유로운 예술에 대한 이론” “하위인식론” “미적 사고에 대한 예술론” “유사이성의 예술”로 나눈다. 바움가르텐은 이러한 감성적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미학의 목적을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이라 칭하고, 이것은 곧 미(die Schönheit) 그 자체라고 정의한다.⁹⁾ 그러면 바움가르텐에 있어서 감성적 능력과 이에 의한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움가르텐은 자신의 형이상학에서 고유한 감성적인 인식능력들에 대해서 탐구한다. 이것을 그는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추리를 하는 이성의 능력과 구분되는 감성적 인식능력을 “유사이성”(analogon rationis)이라고 칭한다. 바움가르텐은 총체적인 감성적 능력으로서 유사이성에 이성과 동등한 진리인식능력을 부여한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감성적 인식능력의 완전한 실현에 의해 도달되는 감성적 진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고자 한다. 1) 독자적 감성적 인식능력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수한 성격을 지니는가? 2) 감성적 인식능력에 의해 도달되는 감성적 진리란 무엇인가?

우선 바움가르텐의 형이상학에서 전개된 유사이성의 특수한 작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사이성은 감성적 능력 전체를 칭하며 다음과 같은 능력들이 있다. 1) 주의력(Ingenium)은 사물의 유사성, 즉 다르게 보이는 사물들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감성적인 능력이며, 외적 감각의 작용에 대한 감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예리한 정신적 변화와도 관계한다. 2) 예민성(acum)은 사물들을 차별성을 지각하는 능력이며, 같아 보이는 사물들 사이의 극미한 유사성도 놓치지 않는 능력이다. 3) 이미 가지고 있는 일련의 표상들을 재인식하는 능력을 기억력이라고 한다. 4) 일련의 표상군을 통해 미래에 대한 지속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 5) 표현과 표현대상과의 일치를 표상 하는 기호능력이 있다. 6) 감성적 판단능력이 있다. 이것은 사물의 표상에 대한 조화, 부조화를 예리하게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취미능력(Geschmack)이다. 7) 시적인 생산적 상상력(Dichtungskraft)이 있다. 이것은 창조적 능력으로서 기억력에 의한 사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표상들을 주의력의 도움을 받아 은유적으로 새로운 미적 형태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감성적 인식의 창조적 순간은 시적 능력에 의해 구성적으로 획득되며, 다양성의 통일이라는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 즉 미적(감성적) 진리가 획득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미적 형태를 통해 예술의 형태를 창조하는 자와, 이를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자는 감성적 인식능력을 풍부히 타고 나온 미적 성품을 지닌 인간이다.¹⁰⁾

위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감성적 인식의 도구로서의 유사이성은 논리적 인식의 도구인 이성과 구분된다. 유사이성은 사물들 사이의 유사성, 차이점, 그것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질서를 지각하고, 또한 그러한 질서를 새롭게 미적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특히 시적 상상력을 통해 건립되는 미적 형상물은 전체적인 이미지의 자율적인 통일을 형성하며 충만한 생명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 즉 미를 목표로 하는 예술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바움가르텐에 있어서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감성적 인식능력(유사이성)에 의한 자연의 모방이다. 예술가는 마치 자연의 창조적 본성(신의 본성)을 모방하여 마치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즉 예술은 세계인식행위로서 독자적인 미적 진리의 세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바움가르텐에 있어서 감성적 인식능력은 미적 진리를 인식하는 능력이며, 또한 이를 표현하는 예술행위는 미적 정신(섬세한 감성적 능력을 소유한 자)에 의해서 가능하다. 바움가르텐에서 미학은 결국 보편적인 학문으로서 미를 통하여 정신을 심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이론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감성적 인식은 인간의 전인적 교양의 도구가 된다. 바움가르텐의 미학의 목적은 결국 감성적 인식능력(예민한 감응, 판단력)의 완전한 계발을 통해 완성되는 미적 인간인 것이다.

그러나 바움가르텐의 미학에서 “윤리성으로의 순화”라는 도덕적 차원에서 감성적 인식과 예술이 인간의 실천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전개되지 않았다. 비로소 칸트의 미학과 그의 영향을 받은 쉴러의 미학에서 예술의 역할은 실천적 요소를 지닌 행위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즉 감성적 인식(미적 인식)은 인간의 도덕적 이념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예술행위로 옮겨가게 된다. 바움가르텐은 예술을 미적 행위로서의 실천적 행위의 맥락이 아니라, 미적 진리라는 감성적 인식론의 맥락에서 주로 전개시켰다.

감성적 인식론으로서의 미학은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을 목표로 하는 미적 인간의 성취에 있으

며, 미적 인간은 곧 예술창조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칸트는 철학의 한 분과로서 미학의 체계를 완성시켰다. 칸트는 인간의 감성적 인식능력을 미적인 반성적 판단력, 즉 “감정을 통한 미를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정의한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에 의해 개별적 대상을 반성함으로써 일어나는 만족감에 의해 미를 느끼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적 체험의 과정은 어떠한 보편적인 개념에 의해 서술되거나 규정될 수 없으며, 또한 대상의 직접적인 감각적 자극에 의해 동요되지도 않으며, 실천적인 행위의 유용성이나, 목적이란 개념으로부터 자유롭다.¹¹⁾

칸트는 순수한 미적 감정은 일종의 사랑스러운 감정, 생명감을 촉진시켜주는 감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감정은 특히 자연에서 느낄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도덕적 심성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나 칸트는 진정한 미의 이상은 “윤리적 이념의 표현”으로서 인간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즉 아름다움이란 인간의 도덕적 이념이 우리가 만나는 자연, 혹은 인간의 형태를 통해 투사되어 상징화된 표현방식이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윤리적 선의 상징”이라는 칸트의 유명한 테제가 생긴다. 인간의 감성적인 취미능력은 인간을 자연성에서 도덕적으로 계발시키는 문화적 작용을 한다. 인간의 총체적인 미적인 감성적 능력의 계발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도덕적 이념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도덕적 감수성을 요구한다.¹²⁾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와 조화에 의해 일어나는 마음의 평정에서 오는 감정이다. 그러한 자연과 인간에서 느끼는 숭고한 감정은 이와 다르다. 숭고한 감정은 우리의 상상력이 대상에 대한 상(像)을 포착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이에 대한 고통과 절망의 극복을 통해 일어나는 감정이다. 이때 우리의 상상력은 대상에 대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를 계기로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다. 즉 자신의 유한한 감성적 능력에 대한 고통과 절망, 걱정을 거쳐 우리 내부의 도덕적 이념들을 일깨워 일종의 정신적인 숭고한 감정이 일어난다. 따라서 숭고의 감정은 대상을 직관할 때, 우리의 유한한 감성적 능력의 한계에 대한

고통과 절망의 과정을 거쳐, 이를 극복하는 도덕적 반성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감정이다.

따라서 칸트에 있어서의 자유미(특히 자연의 아름다움), 미의 이상으로서 인간의 아름다움, 숭고미에 대한 감성적 인식은 보편적인 개념이나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전달될 수 없다. 그러나 미에 대한 감성적 인식은 사적이 아니며 감정을 통해 상호 주관적인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성적 인식능력은 인간이 내부의 도덕적 이념을 수용하는 도덕적 감정의 계발을 전제로 하여 상호 주관적인 동의와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이것은 누구에게나 도덕적 감수성에 기초한 감정을 통해 미를 판단하는 능력, 즉 공통감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칸트의 예술론은 인간 내부의 도덕적 이념을 미적 상징을 통해 표현하는 미적 정신을 지닌 천재의 능력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예술가는 천부적인 자연적 기질로서의 미적 정신을 지녀야 하며, 이러한 능력의 계발을 통하여 도덕적 이념을 미적 상징에 의한 예술작품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천재의 예술작품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범례를 창조한다. 따라서 위대한 예술작품은 인간성의 이념을 자율적인 상상력과 사고력과의 놀이를 통해 미적 상징들을 표현한다.

따라서 칸트 미학은 미와 숭고미를 느끼는 인간의 감성적 능력의 계발을 통하여 도덕적 이념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감성능력으로서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에 의한 미적 감정은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동의와 상호교감이 가능하다. 미적 정신에 의한 창조행위로서의 예술은 칸트에서 윤리적 선의 상징적 표현방식이다. 예술가는 예술 행위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이념을 미적 감정을 통해 전달하고 인간의 문화에 기여한다.

칸트 미학에서 전개된 미적 행위로서 예술론은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론으로 발전된다. 쉴러에 의하면 미적 교육은 미적 영혼, 즉 완전한 미적인 성품의 계발에 있다. 미적인 성품은 인간의 감성적 충동과 이성충동이 조화롭게 만나 일어나는 유

회충동의 계발에 있다. 인간의 유희 충동의 계발을 통하여 감성적 성품과 도덕적 성품이 자유롭게 조화된 총체적 완전한 미적 성품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미적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형태로서의 예술행위와 예술작품이 창조된다. 쉘러에게서 미적 영혼으로부터의 나온 미적 행위는 인간의 자율성의 실현이며, 소외된 인간 자연의 총체적 본성을 회복하게 한다. 따라서 유희충동의 계발에 의한 미적 성품으로부터 인간의 자율성의 실현으로서의 예술행위가 가능하다. 쉘러는 인간이 오로지 유희할 때만이 진정한 인간이며, 가장 자유로운 심적 상태를 형성하게 한다고 말한다.¹³⁾ 이러한 미적 영혼으로부터 나온 행위로서의 예술은 인간의 자기소외를 극복하게 하며, 또한 현존하는 현실적 관계에 의해 억압된 자유와 이성에 대한 통찰능력을 가능하게 한다. 유희충동에 의한 자유로운 예술행위는 스스로 소외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인간성의 실현을 위한 유토피아에 대한 상을 제시해 준다.¹⁴⁾

따라서 쉘러의 미적 행위로서 예술은 총체적인 미적 성품을 향한 인성교육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며, 예술행위는 “자유의 현상”으로서 자기소외라는 사회현실의 억압구조로부터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성의 실현의 가능성을 미적 형태의 창조행위를 통해 보여준다. 쉘러에게서 미적 행위는 가장 자유로운 자율적 행위이며 인간성의 자유의 이념을 감성적으로 현상화한다.

3. 간호이론에서 탐구된 감성적 인식과 예술로서의 간호행위

지금까지 철학적 미학에서 전개된 감성적 인식과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움가르텐, 칸트, 쉘러의 사상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필자는 간호학문에서 감성적(aesthetic)지식과 관련된 예술로서의 간호에 대한 이해를 단지 제한된 문헌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Chinn과 Cramer에 의해 소개된 간호지식의 유형들에 대한 탐구에서 감성적(미학적) 지식(aesthetic knowing)은 경험적, 윤리적, 인격적 지식과 함께 통합적인 간호학적

지식체의 한 유형을 형성한다.¹⁵⁾ 거기서 전개된 감성적 지식은 Capler의 독자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Chinn와 Watson의 저서에 근거하여 설명되고 있다.¹⁶⁾

간호에 있어서 감성적 지식(aesthetic knowing)은 우리가 예술행위라고 불리는 개별적이며, 특수한 주관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의미가 전달된다. 감성적 지식은 특수한 환경의 제한을 넘어서 그 순간의 의미를 지각하게 하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한다. 간호에 있어서 이러한 감성적 지식은 간호사와 간호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행위, 태도, 품행 등을 통해 가시화 된다. 감성적 지식은 간호대상과의 직접적인 교류에 있어서 의식적인 합의가 없이 직접적인 순간에 획득되며, 이것은 간호행위를 창조하게 한다. 감성적 지식은 상황에 대한 참여, 직관, 상상력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성적 경험은 인지적인 재현,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감성적으로 획득되는 순간의 의미는 간호상황에 대한 순간적인 참여 속에서 주관적인 인간경험의 깊이로부터 통찰된다. 여기서 간호사의 직관능력은 직접적인 순간에 대한 고유한 의미를 통찰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을 가시화한다. 이때 바로 이러한 감성적 지식이 성장함으로서 예술로서의 간호행위가 출현된다. 간호사의 행위는 인간경험의 느낌을 통한 타자와의 상호관계의 움직임 속으로 깊이 들어가 고유한 의미를 창조하는 숙련성을 요구한다. 감성적인 지식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순간에서 예술로 표현된다. 따라서 각 각의 예술행위는 반복될 수 없는 고유하고 특수한 실례들이다: 각 각 예술, 행위의 창조는 단지 순간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보자 고통에 시달리는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간호에서 자주 감성적 지식을 반영하는 간호행위다. 고통에 대한 이해과정으로서의 감성적 지식은 직접적으로 간호상황에서 위로라는 예술행위를 통해 표현된다. 이것은 오직 특수한 순간적인 감성적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특수한 행위인 것이다.¹⁷⁾

간호대상자에 대한 감성적 인식은 간호사의 자기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술형식을 통해 표현

된다. 예술은 간호사의 행위의 형식에서 이루어진다. 만성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경험에 대해 간호사는 상상해 볼 수 있다. 물론 간호사는 간호의 순간에서 그 사람의 고통의 경험과 관계된 만성적 고통의 의미에 대한 깊이 발전된 지식으로부터 행위한다. 혹은 간호사는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회화(이미지)를 창조하고 다른 형식으로 완전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유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시(poem)를 읊을 수 있다. 감성적 인식과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는 만성통증의 경험을 상상하는 과정, 그것의 의미를 직관하는 과정, 기술적 수단에 의해 표현을 창조하기 위한 대상자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출현한다.¹⁸⁾

또한 왓슨은 자신의 저서 “간호: 인간 과학과 인간 돌봄”(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에서 초인격적 돌봄(transpersonal care)이 어떻게 예술로서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¹⁹⁾ 왓슨에 따르면 예술의 활동은 한 인격체가 듣거나, 보거나, 혹은 직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또한 표현할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간호사는 다른 인격체의 감정을 수용하고 표현함으로써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의 표현을 받아들여 공감하는 능력은 간호에서 돌봄이라는 예술적 행위의 기초가 된다. 간호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러한 감정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을 때, 혹은 간호사가 그들이 표현하길 갈망했던 감정을 더욱 완전하게 경험하게 하고 드러나게 할 때, 간호는 예술이 되는 것이다.²⁰⁾

간호사가 예술가로서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깨워지는 감정은 다양하다. 강하거나, 약하거나, 중요한 혹은 하찮은 감정; 혹은 사랑, 공포, 용기, 기쁨, 고요함, 놀라움의 감정 등이다. 그것들이 모두 예술이다.²¹⁾

간호에서 돌봄으로서의 예술행위는 간호사와 대상자사이의 상호 주관적인 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즉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

상자의 감정을 경험한다. 간호사는 자신 속에서 일깨워진 감정을 행동, 접촉, 소리, 언어, 색깔, 형식(형태) 등의 수단을 통해 전달한다. 이것이 바로 예술로서의 간호의 활동이다.²²⁾

왓슨은 초인격적(transpersonal) 간호에 있어서 예술로서의 돌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돌봄의 예술은 간호행위에 전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참여시킴으로써 인간감정을 전달하고 드러나게 한다. 예술로서의 간호는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간호대상자에게 더욱 수준 높은 자아에 대한 감각과 정신, 신체 영혼의 조화를 향해 활동하는 돌봄의 과정이다. 이러한 예술은 인간성을 더욱 위대한 조화, 정서적인 진보와 완전성을 향해 움직이게 한다. 왓슨에게 돌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몸, 마음, 영혼의 조화상태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서 예술로서의 돌봄은 간호사와 대상자사이의 상호 주관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 증진하기 위한 인간성에 대한 감정을 지각 표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²³⁾

초인격적 간호과정은 예술이다. 왜냐하면 예술로서의 간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 마음(mind) 신체(body) 영혼(soul)의 조화에 대한 위대한 일치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돌봄의 도덕적 이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주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간호에 있어서 이상적인 돌봄은 예술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성의 감정을 일깨워 상호 공감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²⁴⁾

4. 간호철학의 과제로서 감성적 인식과 예술로서의 간호행위

필자는 간호학에서 언급된 감성적 인식과 예술로서의 간호행위에 대한 대표적 간호이론가들의 사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위에서 전개된 이론에 의하면 간호 행위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감성적 인식과 예술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인 요소로서 작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간호

이론가들이 사용하는 감성적 인식과 예술에 대한 개념은 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간호학에서 응용되는 감성적 인식과 예술에 대한 정의가 어떠한 철학적 기초 하에 전개되어 간호학의 이론 속에 통합되었는지에 대한 경로가 불분명함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미 위에서 제시된 미학사에서 전개된 감성적 인식과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근거로 하여 간호철학이 미학적인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 재정리를 해보기로 하였다.

철학적 미학에서 다루어진 감성적 인식의 대상 영역은 주로 인간 삶에서의 미와 예술이다. 또한 예술로서의 미적 행위는 예술가의 창조행위와, 이에 대한 감상행위 모두를 포함된다. 특히 바움가르텐에 있어서 감성적 인식은 삶의 세계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미적 행위는 새로운 미적 질서의 창조와 관계한다. 또한 칸트의 미학이론에서 예술은 인간의 실천적 삶과 관계한 도덕적 이념의 상징적 표현이며, 쉴러에 의하면 미적행위는 조화롭고 완전한 미적 성품의 실현과 관계한 소외극복을 위한 자유의 현상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적 미학에서 전개된 이러한 주제들, 즉 감성적인 세계진리에 대한 인식과 도덕성의 상징적 표현, 혹은 자유의 현상으로서의 예술은 간호행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간호행위를 예술로서 정의하기 위해 간호철학은 어떠한 과제를 수행해야만 하는가?

감성적 인식과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를 근거 짓기 위한 간호철학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탐구될 수 있다:

1. 간호에 있어서 감성적 인식의 대상 영역은 무엇인가?
간호대상으로서의 인간과 그의 총체적인 삶의 체험과 상황이 대상영역이 될 수 있다.
2. 간호에 있어서 감성적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호사는 간호가 요구되는 대상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주어진 원리나 개념에 의한 분석적인 추론

에 의한 것도 관찰과 실험의 과정을 통한 실증적 방법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는 예민한 감응능력, 상상력, 추리력, 기억력, 예견능력 등을 총괄하는 총체적 감성적 인식능력사이의 조화로운 놀이를 통해 감정을 통한 생동감 있는 간호대상과 상황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각 각의 개별적 간호대상과 상황에 따라 동시적이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간호사의 감성적 인식능력은 간호사의 자연적 재질과 이에 대한 계발을 통해 발휘되며, 자아의 전체적인 인격 구조 속에서 통합된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간호사의 미적인 성품에 의한 감성적 인식의 과정은 간호대상자와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인격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일어나는 사랑과, 고통에 대한 연민 등의 감정의 승화과정을 통해 공감적 투시와 통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성적 체험은 간호의 도덕적 이상을 개별적으로 실현하는 제각기 다른 적극적인 현실 참여적 상황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그러면 간호에 있어서 감성적 인식에 대한 표현방법은 무엇인가?

감성적 인식의 과정에 따른 인간의 정서상태는 개념적인 논리적 서술을 통해 표현될 수 없다. 이것은 예술적인 언어적 표현방법에 의해 서술될 수 있다. 간호사는 감성적 인식에 대한 체험을 예술적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방식들은 의미해석의 순환과정을 통해 간호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간호 상황에 대한 감성적 통찰과정을 통하여 즉각적이며 자율적인 간호행위가 수행된다. 그때 간호행위는 개별적이며 창조적인 미적 행위로서의 예술이어야 한다.

4. 간호에 있어서 행위로서의 예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위해서 간호행위가 예술로서 성립될 수 있는 조건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감성적 인식과 표현에 의한 개별적인 간호행위

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지닌다. 이때의 간호행위는 간호에 대한 주어진 보편적 지침이나 규범에 따른 기술 실천적 행위가 아니라, 독특한 간호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사 고유의 감성적 능력의 통합적인 활동에 의한 창조적 행위이다.

- 2) 간호행위는 합목적적인 행위이다. 간호의 자율적인 행위는 돌봄이라는 도덕적 이상에 합목적적 이여야 한다.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는 간호의 궁극적 이념의 지도하에서 자율적인 감성적 능력들의 조화로운 놀이를 통해 돌봄의 목적을 개별적이며 창조적으로 성취한다. 그것의 성취는 곧 감정(자아만족감, 자아존경심, 자아치유감정 등)으로 표현되며 전달된다.
- 3)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를 통한 감정은 단지 주관적인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과 보편적 동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과 보편적 동의는 오로지 간호의 행위가 돌봄의 이상으로서 보편적인 인간성의 이념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이때 비로소 감정을 통한 상호 주관적인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술로서의 미적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대상자의 도덕적 자아의 인격실현에 합목적적 이여야 함을 의미한다.
- 4)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는 단지 경험과 지식의 습득에 의한 숙련성을 목표로 하는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숙련성으로서의 기술은 간호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예술적 과정에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는 미학적 접근을 통해 감성적 인식과 예술로서의 간호행위에 대한 간호철학의 주제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는 간호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율적이며 개별적인 돌봄의 표현행위이다. 이러한 예술적 행위는 간호사, 간호대상자 모두의 개별적인 인격적 참여가 일어나는 간호상황에서의 간호의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예, 범례로서 작용한다. 기술적 지침이나, 혹은 도덕적 판단과 공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는

간호상황에서도 돌봄은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개별적 예술행위로써 표현될 수 있다.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는 결국 보편적 도덕적 감수성에 기초한 자아 존중감과, 자아 치유적인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성취된다. 간호행위의 실현은 오로지 가치 있는 감정을 통해 표현된다.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는 이러한 가치감정을 상호 공감하고 표현함으로써 성숙된 인격체로서의 가치 있는 삶의 실현에 점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P.J. Salsberry는 간호철학의 근본주제를 존재론적, 인식론적, 윤리적 질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학적 질문에 대해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다. Salsberry, PL., *Establishing common ground in nursing philosophy: A philosophy of nursing, what is it what is it not?*. Kikuchi, J.F. & Simmon, H.(eds). *Developing a philosophy of nursing*. Sage Publication: Thousand Oaks, 7-19 쪽 참조
- 2) 최남희, *간호학의 방법론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1), 151-169 쪽 참조
-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최남희, *간호학의 방법론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 위와 같음.
- 4) 간호실무에서 요구되는 간호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저서를 참고할 수 있다. 홍여신, 한성숙, 엄영란: *간호윤리학*. 신광출판사 1992, 특히 85-171 쪽 참조
- 5) 감성적(ästhetisch)의 근원은 감성적 지각(Aisthesis, Wahrnehmung)에서 비롯된다. In: *Hist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I. Basel/Stuttgart 1971, 119-121 참조
- 6)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Katharsis)를 통한 비극의 효과는 도덕적, 의학적 의미 이

- 외에도 종교적인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 조요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에 있어서의 카타르시스에 대한 해석" 『예술철학』 경문사 1983, 252-270 쪽 참조
- 7)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다. 공병혜, "합리주의미학사상을 통한 칸트의 미의 개념에 대한 발생론적 고찰", 『칸트와 그의 시대』 철학과 현실사 1999, 166-178 쪽 참조
 - 8) A.G.Baumgarten: Theoretische Ästhetik. Die grundlegenden Abschnitte aus der 'Aesthetica'(1750-58). Hamburg 1988. 5-18쪽 참조
 - 9) 위와 같은 책, 11 쪽 참조
 - 1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공병혜, 칸트의 미의 개념에 대한 발생론적 고찰, 위와 같음, 특히 178-190 쪽 참조
 - 11) 칸트의 미적 판단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공병혜, "칸트미학에서 취미론과 예술론의 의미" 『칸트와 미학』 민음사 1998, 286-299 쪽 참조
 - 12) 공병혜, 『칸트와 판단력 비판』 울산대 출판부 1999, 45-57 쪽 참조
 - 13) Friedrich Schiller,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Stuttgart 1990, 15번째 편지 참조. 프리드리히 쉴러,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서간』 안인희 옮김, 특히 83-90 쪽 참조
 - 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저서에서 전개되었다. 케트만 지페르트, 『미학입문』 공병혜 옮김, 철학과 현실사 1999, 167-193 쪽 참조
 - 15) Chinn, P.L., Kramer, M.K. : Nursings patterns of knowing. In: Theory and Nursing 1995 by Mosby-Year Book, P.10 참조
 - 16) 여기서 언급된 저서는 다음과 같다. Chinn P.L. and Watson M.J., Anthology on art and aestheics in Nursing, New York, 1994
 - 17) Chinn, P.L., Kramer, M.L., Nursings patterns of knowing, 위와 같음, 10-11쪽 참조
 - 18) Chinn, PL., Kramer.M.K.: 같은 책, 16 쪽 참조
 - 19) Jean Watson,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1988 by National League for Nursing. 67-72 쪽 참조
 - 20) 같은 책, 67 쪽 참조
 - 21) 같은 책, 68 쪽 참조
 - 22) 같은 책, 68 쪽 참조
 - 23) 같은 책, 71 쪽 참조
 - 24) 같은 책, 71 쪽 참조